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한 은택 목사

명작

우산을 파는 아들과 짚신을 파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늘 우울했다. 비가 오면 짚신 못 파는 아들 때문에, 날이 맑으면 우산 못 파는 아들 때문이었다. 보다 못한 동네 아낙이 말했다. “아니,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리고, 날이 맑으면 짚신이 많이 팔린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그 후로 이 어머니의 인생은 행복했다. 인생은 동전의 양면처럼 앞뒷면이 있다. 전도서 3장에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라며 인생의 양면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면을 보느냐, 어느 면에 치중하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크게 다쳤다. 병원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자니 마음이 심란하고 답답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니 여러 가지가 감사했다. ‘아하! 조금 급하면 이 꼴 나는구나.’ 하고 깨달았으니 감사했고,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병원에 온 김에 종합검사를 받으니 더욱 감사했다. 같은 상황에 생각만 바꾸었을 뿐인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지난 번 기도원에 갔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 준 퇴비가 잔뜩 쌓여 있었다. 기도원장은 퇴비를 주면 토양이 바뀌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했다. 맞다! 토양을 바꾸면 살한 열매를 맺는데, 생각을 바꾸면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이 맺힐까. 한 시대에 맥을 그은 위인들이나 믿음의 선전들에게는 좋은 날만 있었을까? 아니다. 그들에게도 양면은 존재했다. 다만 그들은 어두운 면을 경험이라 여기고, 밝은 면을 보았기에 성공한 것이다.

쏟아지는 장대비를 보지 말고 그 위에 빛나는 태양을 보라. 현재의 고난을 보지 말고 그날의 상을 보라. 지금 너의 생각이 미래라는 것을 명심하라!

고착된 사고에서 벗어나라

정확히 4년 만의 방문이다. 지난 2019년 3월 세부집회를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 우리 세계선교의 문은 닫혀있었다. 그러다 올해 다시 세계선교의 여정을 세부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필리핀(Philippines) 세부(Cebu)는 수도 마닐라(Manila)와 완전히 언어가 다르다. 일본에서 목회하던 유상진 목사가 19년 전에 이곳에 들어와 오로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왔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말도 통하지 않고, 이국땅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생활이 두렵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때는 그런 생각조차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말할 상대도 없고 많이 외로웠다고 한다. 가족 예배를 드리지 못했단다. 둘러앉아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눈물이 쏟아져 제대로

농구 골대 때문에 단상 설치에 애로가 있다는 말을 들으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고정관념을 깨야지. 단상을 꼭 꼭 바로 설치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나. 골대를 피해서 대각으로 설치하면 될 것 아닌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부어 통역을 하던 자매에게도 ‘여자라는 생각에 스스로 한계를 긋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번 집회에는 한국에서 조의수 장로가 동행하였고, 이번에 파택장로 대표로 임명장을 받은 강요셉 장로는 사전에 입국하여 집회준비에 올인하고 있었다. 강장로는 한국에서 하는 사업의 여러 지부를 필리핀에 두고 있어서 자주 이곳에 온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집회가 열리는 곳이 무슬림들이 사는 빈민지역이라 치안

음향조정도 제대로 되지 않아 소리도 서로 잘 들리지 않으니 메시지 전달에도 애로가 많았다. 목사님은 짐통 같은 무더위와 통제되지 않는 회중과 거기에 잘 들리지 않는 음향에, 영어, 세부어로 이어지는 통역 등, 삼중, 사중고와 싸우셔야 했다. 부채질하지 말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야말로 백전노장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다. 반응이 없는 회중, 맨땅에 헤딩하며 열음을 깨야 하는 집회가 어디 한두 번인가. 목사님은 회중 속으로 들어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키고, 병든 자들을 단으로 끌어올려 안수하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한 여인이 울고 있었다. 1년 동안 앓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그녀의 눈



필리핀 세부집회 광경(세부 스포츠센터)

끝을 맺지 못했다는 것이다.

벌써 이곳도 네 번째 방문인데 그동안 유목사가 목회하는 빈민촌도 들어가 보았다. 사람과 가족이 한데 어우러져 너무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 동네에 복음의 씨를 뿌리며 교회를 두 개 짓고, 현재 세부예수중심교회는 성도 300명의 교회로 성장했다.

공항에서 만난 유목사는 바짝 말라 있었다. 그 모습이 오늘의 결과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 이튿날 집회장소로 찾아가 기도하였다. 목사님은 벽에 고정으로 설치된

에 매우 취약하다는 소식을 듣고, 군, 경, 검 합동경호대를 조직하여 목사님 차량이 이동할 때마다 무장경호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 보낸 선교 헌금으로 5kg짜리 쌀 4천 포가 준비되어 집회장소에 옮겨졌고, 염상섭 장로가 보낸 불펜 4천 개는 우리가 직접 화물로 가져가서 전달하였다.

집회 첫날, 분위기는 정말 어수선하기 그지없었다. 마치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득 모인 강당 같았다. 덥기도 하지만 쉬지 않고 부채질에, 시끌시끌. 첫날인지라

이 열렸다. 장내는 환호성이 터졌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껴안더니 목사님께 부부가 함께 안겨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소경이 눈을 뜬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부부가 유상진 목사가 아직 교회를 짓기 전 첫 예배처소를 제공한 가정이었다는 사실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 공짜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목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군경 합동경호대와 함께



소경이 눈을 뜨고 눈물로 기뻐했다

:: 객원컬럼 ::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강반석 목사님의 장례식을 마치고자마자 정광훈 장로님께서 소천하셨다. 두 분은 나에게 특별한 분들이다. 강반석 목사님은 내가 인천교회에서 모셨던 인천교회 담임목사님이셨고, 정광훈 장로님은 인천교회 원로장로님으로 교회의 굵은일을 도맡아 하셨던 분이다.

두 분은 모든 면에서 다른 성향을 가진 분들이었다. 그러나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 인천 교인들에게 언제나 모범을 보이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분들이라는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분들이라 감히 말할 수 있다. 두 분은 목사로서, 장로로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본을 보여주신, 나에게는 그런 특별한 분들로 기억되고 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혹 하나님께, 가족,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허울뿐인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죽이려 계계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겉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속은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또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자들이 된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직분자, 이런 성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브

장영국 목사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숨겨진 재능을 찾아 계발합시다

“진실아, 과자 사줄게. 우리 슈퍼 가자~!” 엄마의 말에 신나게 따라나섰던 7살 어린이가 도착한 곳은 슈퍼마켓 옆 ‘000 피아노 학원’. 할머니가 사주신 피아노를 똥똥거리며 놀러대던 딸에게 재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등록시킨 어머니는, 몇 달 뒤 제가 그곳에서 천덕꾸러기가 될 줄은 상상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 긴 한숨을 쉬며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내용인즉슨, 타 학생들과 저를 비교했을 때 악보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이론에 대한 이해력도 턱없이 부족하니 더 이상 가르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머니는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셨지만, 수업 때마다 하기 싫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는 통에 선생님 스스로 그만두시는 상황까지 벌어졌지요. 또다시 수소문 끝에 타 교회에서 반주하시는 선생님을 집으로 모셨고, 마침내 반주의 기초를 배우면서 평생 주님께 반주로 영광 돌리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반주를 시작하면서 ‘믿음만 있다면 꿈은 이루어진다. 기도하여 하늘을 침노하라’는 총회장 목사

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처럼, 또 베드로, 바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복음을 전하시려 필리핀으로 떠나시기 전날, 수요일예배를 마치고 정광훈 장로님 장례식장에 그 가족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셨다. “내 입안이 다 터졌어.” 하시며 정 장로님 가족을 위로하셨다. 정말 주님의 종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지 알 수 있었다. 목사님이 “주님, 정 장로님이 내 일을 도왔어요.” 하시며 ‘내가 인정하는 장로’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신지 머리가 숙여지고 마음이 뭉클했다. 저런 당당함 뒤에는 저 수고와 노력, 충성이 있다. 우리는 모두에게 보이신 그 모범의 본을 닮아야 한다.

우리는 각자 주님이 주신 직분을 받았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등 받은 직분에 자부심이 있는지, 그런 자부심이 있다면 그 직분만큼 충성은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히9:27). 세월이 약이 될 수 있지만 세월의 함정에 빠져서 내일로 미루다 후회할 수 있다.

지금 남은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기회다. 이 기회를 잡아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여 주 앞에 인정받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

김진실 사모

:: 오늘의 메시지 ::

진주 같은 고난

서양에서는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진주(Frozen Tears: 얼어붙은 눈물)를 주는 풍습이 있답니다. 살다가 속상할 때 조개가 살 속에 모래알이 박힌 고통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참고 견뎌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조개의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은 조갯살 속에 박혀 고통을 줍니다. 그때 조개는 ‘nacre(진주층)’이라는 즙을 짜내어 모래알 주변을 덮어 싸고, 또 덮어 씹니다. 그것이 몇 년 흐르면 아름답고 값진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시119:71)고 했습니다.

왜 유익일까요? 다윗은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67절). 그는 거듭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71절)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하고 나니 여호와와의 법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욕이 고난을 당한 뒤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42:5)라고 고백한 것처럼.

살다 보면 우리 삶에 모래알처럼 아프고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왔을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는가?’ 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값진 진주를 품고 있구나!’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분명 지금 흘리는 고통의 눈물이 내일 아름다운 진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 5:3~4).

예수중심편집실



:: 소망의 언덕 ::

삶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

최근 들어 교단의 귀한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주님 품으로 돌아가시어 천국 환송예배를 여러 번 드렸다. 이전에는 그저 어린 마음에 이별의 슬픔이 컸다면 이제는 한 질문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는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름답게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나의 마지막도 저분들과 같을 수 있을까?”, “나도 저분들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

그분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무엇보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우선하셨던 분들이었다.

이 세대는 1년 365일 쉼 새 없이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과도한 스케줄과 과중한 업무로 잠시 궁둥이 붙일 틈도 없이 발에 불이 나도록 뛰어난다. 하지만 삶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전 세계 15~88세의 크리스천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자주’ 혹은 ‘항상’ 바쁘다고 했다. 그리고 10명 중 6명이 ‘자주’ 혹은 ‘항상’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너무 바쁘면 하나님, 삶의 의미, 삶 자체

를 놓치기 쉽다. 너무 바쁘면 귀가 닫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려면 하나님과 같은 주과수를 유지해야 하는데 일과 학업에 과몰입하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너무 바쁘면 심신이 지쳐 진정한 소명을 놓칠 수 있다.

총회장 목사님은 말씀하셨다.

“천만금을 준다 해도 기도 시간과 맞바꾸지 마라.”

목회의 바쁨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이다. 아무리 바쁘게 세상이 돌아가도 ‘예수 안에서’를 붙잡아야 한다, 바쁨 때문에 ‘예수 안에서’를 잃어버리면 안된다는 말씀이다.

그분들은 각기 모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섬김을 하고 계셨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함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사신 분들이었다. 삶의 마지막까지도 교회의 남겨진 자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가신 분들이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공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기준, ‘예수 안에서….’

이현승 목사

죽기 전에 꼭 교회를 지어야겠습니다



세부 한인회 조봉환 회장(왼쪽), 이운장 회장과 함께

“목사님이시죠?”

필리핀(Philippines) 세부(Cebu)행 KE615편이 세부 막탄(Mactan)국제공항에 착륙한 후, 기내 도어가 개방되기를 기다리던 목사님께 다가와 인사하는 사람이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누구신지요?”

“편한 여행은 되셨나요? 인사드립니다. 저는 세부 한인회장 조봉환입니다. 저도 한국에 다녀오는 길인데, 목사님이 세부에 오신다는 소식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스치듯 잠깐 인사를 나눈 후 공항에서 헤어졌다. 매우 우연한 만남 같았지만 주 안에서 우연이란 없나보다. 이튿날 그로부터 저녁식사에 초대한다는 전갈이 왔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곳에 오기 전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코로나로 인해 꼭 4년 만에 다시 세계선교에 나서는데, 그 첫 집회에서 꼭 이 지역의 영향력 있는 인물을 예비해달라고 기도했다. 내가 집회 때마다 항상 기도하듯이 새로운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지경이 넓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부터 그런 만남을 예비하신 것이 분명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다.”

고동리라는 한식집에서 만난 조회장은 된장찌개와 김치갈비찜으로 우리를 대접해주었다.

“여기 오신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큰 감흥이 없으실 수 있겠으나 해외에서 한국인에 대한 최고의 대접은 역시 한국음식이니겠습니까?”

목사님은 감사를 표하며 조회장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라 믿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회장은 젊은 시절 기도원에 갔던 일화를 소개했다.

“저희 큰 누님이 믿음이 좋으셨는데, 우리 집안에서 제일 과워가 세셨어요. 제가 젊을 때 좀 버라이어티하게 살다가 일도 제

대로 되지 않고 해서 집에서 소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큰 누님이 기도원에 가서 열흘 금식을 하라고 저를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누님이 무서워 꼼짝 못하고 기도원에 갇지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느낌도 없었는데, 그래도 금식은 했답니다. 하하. 그리고 나왔는데 며칠 있다가 친구로부터 연락이 오더니 그때부터 일거리가 생기고 그 후로 주옥 잘 풀려나간 거 같아요. 살만해지니 교회도 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때 그 시절 생각이 나더군요. 사실 저는 필리핀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장인이 시장을 역임했고, 지난 정부에서는 각료로 일하기도 하셨어요. 제 아내는 장인을 이어 시장을 두 번 역임했는데, 그만 지난 선거에서 낙선했어요. 2년 후 차기를 다시 노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간증과 함께 세계선교의 비전을 이야기하셨다.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오늘의 만남이 더더욱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필연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나 역시 한 때 정치를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 문이 열리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사지가 마비된 것을 어떤 의사가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고쳐주셨기에 나의 재산을 팔아가며, 내 목숨까지 던져가며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과 대화해보니 우리 뭔가 배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스케일이 큰 사람끼리 뜻을 합하면 큰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회장님과의 만남은 내가 기도한 결과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들어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곳에 왔는데, 첫 번째로 공항에서 회장님을 만난 것이 절대 범상치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이 세부를 변화시켜 봅시다.”

목사님의 진솔한 모습, 열정적인 말씀에 조회장도 적잖이 감동한 모습이였다.

“저도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한

인협회 빌딩을 지으려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아니라 죽기 전에 큰 성전을 하나 짓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대형집회를 하신다면 장소섭외부터 모든 것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경험도 많고 나를 영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목사님 뒤에 서서 대화의 모든 과정을 듣고 있던 이운장 회장(조회장을 도와 한인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이란 분이 목사님께 감사하다며 식사비용 일체를 지불했다. 목사님은 ‘두 분이 힘을 합해서 함께해준다면 반드시 이 세부를 변화시킬 수 있다’며 기도해주셨고, 이회장은 꼭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목사님이 이런 경우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다.

“음식도 뜨거울 때 먹어야 하고, 쇠도 달구어졌을 때 두드려야 한다.”

목사님은 이튿날 점심에 다시 조회장과 이회장을 호텔 식당으로 초대하였다. 조회장은 이미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 유튜브를 통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다. 부활절 예배 영상도 다 보았다는 것이다.

“허허, 이제 회장님 신앙이 부활하셨군요. 정말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일에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런 역사를 이루어봅시다.”

이튿날 마닐라(Manila)로 간다는 조회장으로부터 목사님께 문자가 왔다.

“이제 출국하실 준비 하시겠네요. 목사님을 뵈어서 영광이고 예수님께 돌아 가게 되어 기쁩니다.”

또한 이회장이 집회장에 보이지 않아 궁금했는데, 이런 문자가 왔다.

“마음이 아파서 집회현장에서 돌아섰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사님은 두 회장에게 문자를 통해 거듭 사의를 표명하고 집회 사진 및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보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이번 세부집회 전에 두 회장님을 만나게 하신 주님의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세부를 예수중심도시로 만들어 봅시다. 또한! 기도해주신 덕분에 큰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한국에 오시면 꼭! 연락 바랍니다. 집회 사진도 몇 장 보냅니다. 부디 온 가족이 건강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봉우 이초석 목사”

유상진 목사가 이 세부 땅에 눈물로 뿌린 씨앗이 마침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 세부 도성에 이루어지도록 합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은택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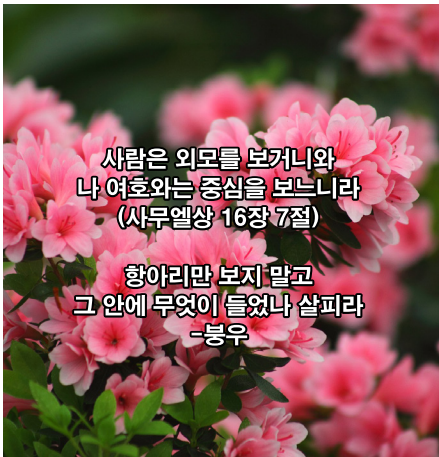
일편단심 민들레

노란 꽃이 핀 민들레를 뿌리째 캐서 베란다에서 말리면서 뒤집고 뒤집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잎은 시들 대로 시들었는데 꽃대는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분명 노란 꽃이었는데 하얀 꽃씨를 날려 보내려고 하얀 꽃망울을 아름답게 피우고 있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다. 잎은 시들고 죽어 가는데 꽃씨를 날려 보내려고 최후의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민들레, 누가 말했든가?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민들레는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몫을 다하고 있었다.

민들레의 마지막 작품이 꽃씨를 맺는 것이 본성이라면 사람의 본성은 무엇일까? 선조들이 세상을 살다가 육신은 한 줌의 흙이 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짐을 보았다. 지금은 내가 살아있어 나의 존재를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언젠가 나도 한 줌의 흙을 남기고 세상에서 사라진다. 세월이 흐르고 먼 훗날이 되면 나의 존재를 기억해줄 사람조차 없을 때가 분명 올 것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민들레가 말라 죽어가면서 남아 있는 진액을 꽃대에 보내어 꽃씨를 맺어 바람에 날려 보내는 것이라면 나의 육신도 내 영혼을 위하여 희생을 다하면 민들레처럼 하늘나라에서 부활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계획이었고 창조주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누가 죽어가면서 자기의 몫을 다하고 죽었는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 그가 죽지 아니하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지 못하고 그가 죽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신령한 새 몸으로 부활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다 쏟아주시고 죽으셨다. 자신의 생명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영광과 그에게 붙은 열매를 위하여 죽으셨다. 민들레가 죽어가면서 민들레의 본성을 보게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이다. 우리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야 함(고전15:44)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활하사 영생을 보여주심이다.

이승호 목사



사람은 외모를 보거나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두엘상 16장 7절)

향아리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나 살피라
-봉우

춘계산상집회

2023. 5월 1일(월)~4일(목)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 533. 9191